

회사는 적자에 구조조정하는데… 양보없는 車노조

전체 파업, 대우車 인수 후 처음
내일 쟁의대책위, 투쟁방침 논의
생산차질 물량 약 1만여대 추산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이 계속되는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TCK 노조)는 전면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지엠 산하 노조 전체가 파업 태세를 갖추는 것은 2002년 지엠이 대우 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만 1만여 명(한국지엠 노조 8000여명)에 달한다.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물량은 1만여대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파업기간이었던 지난



노조 전면파업에 돌입한 한국지엠 부평공장. /연합뉴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조합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특근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 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설 법인 TCK 노조 역시 기존 노조와 동일한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누적 적자(순손실 기준)가 4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의 노사 간의 갈등은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인 올해 5월 교섭 장소를 놓고 양측이 의견을 보이며 시작됐다. 5월 30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은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

간 협의에 임하던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교섭 장소 교체를 요청했다.

7월 9일 노사 간 협의로 교섭 장소를 정해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등을 거쳐 지난달 8일 쟁의권을 확보한 뒤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해 왔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역시 지엠(GM)의 파업에 들어갔다. 4년 전 체결된 협약이 만료됐지만, 전미자동차노조와 지엠은 끝내 새로운 협약에 합의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엠의 미국 생산이 중단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지엠 차량 생산도 멈춰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지엠 공장에 근무하는 전미자동차노조 소속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지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은 7년 만에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생산직 선임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지속된 부산 공장의 장기 파업으로 르노 본사의 수출 물량 배정이 지연되면서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해져서다.

올해 1~7월 르노삼성 부산 공장 생산은 9만88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올해 생산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은 부산 공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 위탁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생산이 불안정해지자 닛산 측은 올해 위탁 물량을 당초 10만대에서 6만대로 줄였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장기화로 대규모 파업을 겪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현대車, 전기버스에 원격 관제 시스템 적용

KT와 커넥티드카 협업
빅데이터 분석·관리 가능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차량 운행 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한 전기버스 전용 원격 관제 시스템(FMS)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원격 관제 시스템 적용으로 실시간 전기버스 관제를 통한 효율적인 배차 및 경로 등 체계적인 전기버스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차량 고장 안내, 법규 위반 예방 등 실시간 안전 운전 유도를 통한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KT와 커넥티드카 플랫폼 기술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번 원격 관제 시스템은 ▲전기버스 전용 전기차 관제 ▲위치 관제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관제 등 다양한 기능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전기버스 전용으로 마련된 '전기차 관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

/현대자동차

배터리 상태, 주행 가능 거리 등 전기버스의 주요 기능을 관제 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고지에서 통합적으로 차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차량 별 종합된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관제'는 유·무선통신망으로 획득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배차 시간 조정, 사고 발생 위치 확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 관제'는 실시간 차량 관제 및 운행 정보 분석을 통해 친환경 경제 운전,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대자동차는 원격 관제 시스템을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 14대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 도입되는 전기버스 차량 전량에 시범 장착 예정이며 이를 사양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현대상선, ERP 포함 주요업무 시스템 클라우드기반 전환

현대상선은 재무·회계(ERP) 시스템과 화주 대상 서비스가 포함된 홈페이지 관리 등 주요업무 시스템을 16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ERP 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리의 전환은 현대상선이 오리클과 함께 구축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의 1단계 작업이다. 이를 통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세스 혁신 작업도 단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2단계에서는 컨테이너·밸크 운송을 위한 차세대 해운물류 시스템 'New GAUS 2020'(가칭) 등 회

사 내 모든 데이터와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현대상선이 독자 개발 중인 'New GAUS 2020'은 운항, 계약 및 예약, 운송 등 선사 운영 정보를 비롯해 선박, 인사, 관리 등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IT 시스템이다.

현대상선은 해운업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IT 기술 접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해운업에서 디지털 전환 및 IT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만3000TEU(1T



현대상선은 ERP·홈페이지 관리 등 주요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상선

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 선 12척 등 초대형 선박이 인도되는 2020년에 맞춰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무협, '마이트레이드'로 맞춤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7일 기업별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인 'マイトレード(My Trade)'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マイトレード는 무역협회가 보유한 무역통계, 보고서 등 무역정보 자료와 협회 지원사업 등을 선별·분석·가공해 개별 기업에 필요한 정보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무역협회 회원사에는 수출입 실적, 지원사업 신청내역 등을 볼 수 있는 '자사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사 정보에서는 교역국 및 품목, 수출입 주이 등 자체 시스템 없이는 파악하기 힘든 해당 기업의 무역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교역 국가나 품목이 같은 국내 경쟁 기업의 수출입 실적과 증가율 등을 비교할 수도 있다.

'맞춤형 무역정보'는 수출하고자 하

는 품목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 6자리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인구·신용도·수입규모·점유율·세율 등을 종합해 가장 유망한 시장을 추천해준다.

추천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경쟁국, 경쟁국과 한국의 시장 점유율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다.

'추천 서비스'는 연간 12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중 관심 있는 품목 및 국가 정보를 선별해 추천한다.

무역현장에서 30여 년 간 해외 마케팅을 전담했던 73명의 MC(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과 수출입 대행을 해주는 306개사의 전문무역상사, 관련 인재 및 교육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르노삼성車, 태풍 피해고객 대상 프로모션

이달 말까지 한가위 추가 할인

르노삼성자동차는 태풍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태풍 피해 고객 추가 할인은 태풍 피해자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적용한다. 법인, 리스, 렌터카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태풍 피해 고객 추가 할인은 태풍 피해자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적용한다. 법인, 리스, 렌터카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태풍 피해 고객은 기존 9월 추석 구매 혜택에 50만원 추가 할인을 더해 '르노 클리오' 최대 400만원, 'QM3' 최대 4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총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면 클리오 ZEN 트림은 1554만원(개별소비세 포함) 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클리오

와 QM3 모두 전용 태블릿 내비게이션인 'T2C'를 무상 제공한다.

2020년형 SM6 구매 고객에게는 50만 원의 유류비 지원과 함께, 30일까지 차량 출고 시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 또는 설치형 공기 청정기를 무상 제공한다.

더불어 100만원의 현금 지원 또는 최대 120만원 상당의 옵션, 용품, 보증 연장 서비스 구입비 지원 중 한 가지를 더 선택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르노삼성자동차